

의료인 폭행 막을 대책 없나?

서울 강북삼성병원 입세원(47)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외래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응급실 뿐만 아니라 병원 전체에서 의료진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이 의원 압박 등을 통해 발의됐지만, 매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따라서 의료계 안팎에선 호신용 장비를 스스로 준비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28일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사흘이 지나지 않아 참변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응급실 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의료인 안전을 보호하는 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 의료인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폭행은 수시로 이뤄졌고 살인 사건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에도 경기도의 한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6차례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해 의료계가 충격에 빠진 바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 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는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의료진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 왔지만 번번이 좌절돼 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 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법이 통과 됐을 뿐 의료인 전반에 대한 폭행 처벌 강화법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해에만 의료인을 폭행·협박해 상해를 이르게 한 경우 징역형 이상의 처분을 내리는 내용의 김광수 의원 법안, 의료인 폭행 처벌의 내용에 주취자 기증처벌을 추가하는 내용의 기동민 의원 법안 등 7개 법안이 발의됐다.

올해는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이 본격적으로 심의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지는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의료진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공감대를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시작된 이 청원에는 사흘만인 2일 정도 현재 3만20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

하지만 처벌 강화가 사고를 막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의료인들은 입을 모은다.

급기야 의료계에서는 자체적으로 가스총이나 호신용 스프레이, 방탄조끼를 구매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의료인폭행처벌강화법 매년 발의...국회서 낮잠 의료진 폭력 처벌 강화 '청원 동의' 3만 명 넘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A씨는 "호신용 스프레이 하나만 있었어도 이렇게 허무하게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당장은 의사 스스로 자체 무장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정신과의 경우엔 성격상 한 공간에 의사와 환자가 외에 보안인력을 대동하고 진료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한 정신의학과 의사 B씨도 "뾰족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며 "당장 진료책상 서랍에 호신용 도구를 비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병원 내 금속 탐지기 도입, 경찰 인력 배치 등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의사 C 씨는 "흉기는 아예 소지를 못하도록 금속탐지기를 설치하

는 방법이 그나마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개인 병원 같은 경우는 이마저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신질환자 모두를 잠재적 공격자로 차부해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의사 D씨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정신질환이 없는 환자보다 평균적으로 범죄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전체를 문제 삼는 것은 또 다른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



“우리 교실은 어디지?” 충북도교육청이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예정자에 대한 예비소집을 2일부터 각 초등학교별로 시행한 가운데 청주 병정초등학교를 찾은 취학예정 아동과 학부모들이 1학년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 주월·백운동 주민들 하수도 정비 지연 ‘분통’

지난해 여름 폭우로 연속 침수 피해를 입은 광주 남구 주월동·백운동 주민과 상인들은 1일 “하수도 정비가 당초 계획보다 늦춰진다”는 소식에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이용섭 광주시장이 피해를 입은 직후 ‘장마철이 오기 전까지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다”며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주월동·백운동지역은 지난해 8월27일과 31일 내린 시간당 60mm의 폭우에 상가 104동, 주택 20가구, 차량 70여대, 아파트 지하시설, 농경지 7.5ha가 물에 잠겼다.

빗물이 빠지지 않아 골목길은 한때 사람 허리까지 찰 정도였으며 주민들은 옥상과 고지대로 긴급히 대피했다.

침수 원인은 백운동광 하수도 및

물 처리용량이 시간당 50mm로 설계돼 있어 역류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이 구간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정비가 계획돼 있었지만 도시철도2호선 예정구간 500m와 맞물리면서 완공 1년을 앞두고 전면 중단돼 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하수도정비 사업이 시급하게 추진됐지만 공기가 늦춰져 우려를 낳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에서야 ‘백운동광주주월 하수도 개선사업 설계 용역’에 착수했으며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오는 5월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뒤 실제 공사기간 6개월까지 더하면 완공 시기는 오는 11월 또는 12월로 예정돼 폭우가 가장 많이 내리는 여름에도 똑같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주월동에서 10여년 거주한 주민 A(63)씨는 “지난해 여름 집이 물에 잠겨 복구하는데 한달정도가 걸렸으며 가전도구를 새로 구입했다”며 “올해 여름도 기습폭우가 내려 또 집이 잠기면 어떻게 생활을 하겠느냐고 분노했다.”

미트를 운영하는 상인 B(53)씨는 “상가건물 1층이 물에 잠겨 1000만 원 이상 피해를 입었다”며 “올해 장마철이 오기 전까지 하수도 정비해 준다는 말만 믿고 있었는데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예산 40억7000만 원을 투입해 총 공사구간 505m에 가로 2.5m·세로 3m 규모의 하수관로를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서은홍 기자

새해 첫날 식당서 현금 훔친 군인 헌병대 인계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휴가 중 식당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0) 상병을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 상병은 지난 1일 오전 7시38분께 광주 북구 한 감자탕집 계산대에서 52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상병은 휴가를 나온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민취한 A 상병은 경찰에 “(범행 사실이)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서 섬찾은 차량 해상추락 40대 여성 숨져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여수시 섬을 찾은 40대 여성이 타고 있던 차와 함께 해상에 추락해 숨졌다.

1일 여수해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58분께 여수시 남면 금오도 직포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차 안에 있던 A(48·여) 씨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남편과 함께 새해 해돋이를 보기 위해 2~3일 전 금오도로 왔으며, 사고 당시 남편은 민박집을 알아보기 위해 선착장에 주차 후 차량에서 내린 상태였으며 A 씨 혼자 차에 남아 있다가 해상에 차량이 추락했다.

차량이 바다 위로 빠지자 A 씨는 119 종합상황실을 거쳐 여수해경에 신고했고 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 등을 사고 현장으로 보냈다.

해경은 차량에 타고 있던 A 씨를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여수의 한 병원으로 옮겼으나 A 씨는 회생하지 못했다.

여수해경은 A 씨의 남편과 목격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행인과 쌍방폭행 상근예비역 헌병대 인계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시비가 붙은 행인을 서로 때린 혐의(폭행)로 육군 모 부대 상근예비역 A(21) 상병을 헌병대에 인계하고, B(20)·C(2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9일 오전 4시5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주먹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상병은 친구 B씨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일면식이 없는 C씨 일행과 승강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친구 2명과 아파트 주변 상가로 술을 시러 이동하던 중 잃어버린 지갑을 찾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민취한 A 상병과 B씨가 갑자기 욕설하며 시비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C씨가 B씨와 A 상병을 먼저 폭행했으며, 이에 대항해 A 상병 일행도 C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구대로 연행된 A 상병은 “수갑을 풀어달라”며 행패를 부렸으며 B씨는 이 사건에 앞선 지난달 29일 오전 2시50분께 5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A 상병은 당시에도 B씨와 함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임형택 기자

4살 딸 학대치사의 의혹 30대 여성 긴급체포

새해 첫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4살 딸을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어머니가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흑한의 남편에 딸을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친모 A(34)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에 의정부시 신곡동 자신의 집에서 딸 B(4)양이 바지에 오줌을 싸다며 깨우자 화장실에 4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쓰러진 뒤 8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져 결국 사망 신고를 받았으며, A씨는 학대 정황을 인지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오전 7시에 딸이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참대로 옮겼다”며 “오후 3시에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B양이 쓰러진 지난 1일 오전 7시에 의정부시 신곡동의 기온은 영하 12.7도였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